

/ 가을, 가을 만만 전시회 2제 /

▶ 'RAINBOW 광주...' **광주의 역사·문화 되새겨**
▶ '조각가 62 초대전' **현대 조각의 흐름 한눈에**

2008 광주비엔날레(9월5일~11월9일)를 찾은 외국인들에게 광주의 멋스러움을 선사하는 뜻 깊은 전시회들이 열리고 있다.

국립광주박물관(관장 조현중)의 'RAINBOW 광주, 그 유구한 문화의 도시' 기획특별전(오는 12월28일까지)과 국내 조각의 흐름을 한 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는 조선대학교 미술관(관장 정운태)의 '한국현대 조각가 62 초대전(12일까지)'이 그것.

국립광주박물관은 개관 30주년과 2008 광주·전남 방문의 해를 맞아 선사시대에서 근대까지를 통틀어 모두 450여점의 유물을 선보이는 특별전을 마련한다. 수천년을 이어온 광주의 역사와 문화적 특징을 부각시켜 유구한 역사 속 광주의 모습을 되새겨보는 전시로, 'RAINBOW'는 무지개처럼 빛나는 돌이라는 뜻의 '무돌'에서 따왔다.

이번 전시는 크게 4부로 구성됐다. 제1부 '광주의 경관과 고대문화'에서는 농경유적인 신창동유적에서 출토된 목기류, 토기류와 동림동 유적 등을 선보인다. 제2부 '광주의 불교와 도자 공예'는 광주 지역 불교의 전래 과정과 화려했던 고려·조선시대의 불교미술과 도자 공예를 보여준다. 광주불교미술의 진수인 광주서오층석탑(보물 제109호)에서 발견된 사리갖춤과 원효사에서 출토된 천불(千佛)의 소조물 등이 출품됐다.

당대 최고의 학자와 예술가들을 조명하는 제3부 '광주의 예술과 학문'에서는 놀재 박상, 하서 김인후,



광주서오층석탑 사리기



정지 장군 환삼

고봉 기대승, 노사 기정진의 학문 세계와 허백련, 오지호 등의 예술 세계를 감상할 수 있다. 제4부 '의

들은 목재, 대리석, 청동 등 다양한 소재를 이용해 현대조각의 세계를 선보인다.



오혜경 작 '행운목'

다른 '상항-72', '상항-73' 등을 발표하며 한국 조각의 리얼리즘을 개척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지난 1971~72년 국전에서 문화공보부(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받으며 명성을 얻었지만 1974년 뇌출혈로 타계했다. 문의 062-230-7832.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박물관 선사~근대 유물 450여점 선보여
조선대 강관옥 등 작가 80명 작품 감상

향으로서의 광주는 국가위기 상황에서 나라와 민족을 구한 고경명, 김덕령, 정충신 장군의 유품이 전시된다. 또 일제 강점기 당시 광주 학생운동과 5·18민중항쟁 등 현대에 이르기까지 정의의 투쟁을 위해 피 흘렸던 광주의 민족정신이 고스란히 담겼다. 문의 062-570-7000.

조선대학교미술관 '한국현대조각가 62 초대전'은 한국 조각의 오늘과 내일을 조망해보는 전시로 강관옥, 고근호, 김대길, 김선구, 김숙빈, 조대원, 한갑수, 한종근, 황경숙 등이 80여명이 참여한다. 이

오혜경씨는 감나무와 나무 아래에서 감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사랑을 알루미늄 활판에 묘사한 작품 '행운목'을 통해 인간의 허황된 꿈을 꼬집는다. 또 위재환씨는 대리석을 깎아 만든 구름 위 작은 문물 형상화한 'gate and ing'을 전시한다.

또 이번 전시는 1960년대 조각계에 혜성처럼 등장했다가 불과 33세의 나이에 생을 마감한 조각가 양두환(1941~1974)씨를 기리는 추모 특별전 성격도 띠고 있다. 조선대 미술과 교수로 재직했던 그는 조각 분단의 아픔을 정면으로

초대받지 못한 작가들의 '반란'



지난달 30일 오후 광주비엔날레 전시관 앞 테마파크에서 펼쳐진 '게릴라 퍼포먼스'에서 사무엘 페나소(필리핀)가 식량 문제를 풍자한 행위예술을 펼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07 광주에 온 아시아지역 작가들
08 테마파크서 '게릴라 퍼포먼스'

2008 광주비엔날레(9월5일~11월9일)를 찾은 아시아지역 작가들이 지난달 30일 오후 비엔날레 전시관 앞 테마파크에서 '게릴라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이들은 비록 비엔날레 참여작가로 선정되지 않았지만 글로벌 미술축제를 통해 광주시민들을 만나기 위해 전시장을 찾은 것.

이날 게릴라 퍼포먼스에는 '아시아 퍼포먼스 아트 인 서울'(27~28일) 참여 작가인 세이지 시모다(일본), 사무엘 페나소(필리핀), 응 풍차오(중국), 김광철씨 등 4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몸에 쌀을 퍼붓고, 종이컵으로 눈을 가린 채 걸어가거나 등 다양한 행위예술을 펼쳐 관람객들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남도사랑 가곡 발표회

2일 광주 서구문화센터

아름다운 시와 멜로디가 어우러진 가곡이 가을밤을 수놓는다. 지역 출신 시인들의 시에 곡을 부친 제1회 남도사랑 가곡발표회가 2일 오후 7시30분 광주 서구문화센터 공연장에서 열린다.

전남시인협회(회장 이성관)와 남도사랑작곡가회(회장 이민수)가 함께 마련한 이번 발표회에서는 이성관 시에 김정덕씨가 곡을 부친 '예전에는 몰랐는데'를



이성관 회장



이민수 회장

비롯해 장두조 시 김준석 곡 '부채의 고독', 조선희 시 이민수 곡 '내가 당신을 슬프게 했나요', 백국호 시 김소정 곡 '더 먼길을 가기 위하여' 등 가곡 20

여곡이 관객들을 만난다. 소프라노 신재희·박양숙, 바리톤 염종호, 테너 장호영, 피아니스트 김하나·나원진·최정은씨가 연주자로 참여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시모곡 2

▶ 류현자 개인전 **버선 곡선이 만든 다양한 선의 변주**

치마 밑으로 살짝살짝 드러나는 버선의 우아한 곡선은 한국적인 아름다움 가운데 하나다.

한지를 뜯어 붙이는 기법을 통해 버선의 조형성과 현대성을 추구하고 있는 류현자씨가 2~8일까지 대동갤러리에서 7번째 개인전을 갖는다. 이번 전시에서 류씨는 버선의 곡선이 만들어 내는 다양한 선의 변주를 담은 신작들을 선보인다.

여러 겹의 버선 모양을 겹쳐 붙이는 방법으로 기하학적인 곡선을 만들어 냈고 노랑, 빨강, 초록 등

원색을 덧칠해 한지의 맛깔함도 없었다. 또 한지의 독특한 질감을 살려 버선목에서 버선 코에 이어지는 곡선을 입체적으로 표현했다.

전남대학교 미술학과를 졸업한 류씨는 서울 공명아트갤러리 등지에서 개인전을 가졌고 한·중·사 전시성 중진작가 초대전, 미국 LA 아트페어 초대전 등에 참여했다. 한국미술협회, 전통과 형상회, 예뵤크 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문의 062-222-0072.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미술계 대책회의 "미술품 과세안 삭제해야"

'2008 세계개관안에 대한 범미술계 대책회의'는 지난달 30일 정부의 세계개관안 중 개인간 미술품 거래 양도차의 과세 및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예술창작품의 단계적 과세 전환 방안과 관련, "미술 시장 활성화에 역행하는 세제에 반대한다"며 삭제

를 요구했다. 한국미술협회, 전업미술가협회, 한국미술평론가협회, 한국화랑협회, 한국관화사진진흥협회, 민족미술인협회, 인사전통문화보존회 등 7개 단체가 참여한 대책회의는 이날 오후 프레스센터에서 '한국미술시장의 진흥과 과제' 세미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성명서를 채택했다. 성명서는 "세법의 글로벌 스탠더드보다 문예진흥정책의 글로벌 스탠더드가 우선돼야

한다"며 "정부의 세계개관안은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은 부족하고 예술인들의 환경은 열악한 상황에서 의무만 이증으로 부과하려는 처사"라고 강조했다.

이어 "미술시장의 투명화를 위해 작가, 화상, 전문가가 참여하는 '미술 시장공정거래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미술계의 단결을 강화하면서 개관안에 대해 단호히 대처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제8회 곡성심청축제 THE 8TH GOSONG-SHINCHONG FESTIVAL 2008. 10. 2(목) ~ 10. 5(일) / 4일간 장소 - 곡성 삼진강기차마을

- 10월 2일(목) : 1. 전통민속놀이, 2. 전통민속공연, 3. 전통민속시장, 4. 전통민속체험, 5. 전통민속전시, 6. 전통민속판매
- 10월 3일(금) : 1. 전통민속놀이, 2. 전통민속공연, 3. 전통민속시장, 4. 전통민속체험, 5. 전통민속전시, 6. 전통민속판매
- 10월 4일(토) : 1. 전통민속놀이, 2. 전통민속공연, 3. 전통민속시장, 4. 전통민속체험, 5. 전통민속전시, 6. 전통민속판매
- 10월 5일(일) : 1. 전통민속놀이, 2. 전통민속공연, 3. 전통민속시장, 4. 전통민속체험, 5. 전통민속전시, 6. 전통민속판매